

“철강산업 위기·통상환경 급변에 유연 대응”

장인화 포스코 회장, 26회 철의 날 기념식서 강조

광양제철소 손병근 포스코 명장 ‘동탑산업훈장’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를 50%로 인상한 가운데 정부와 철강업체가 철강 산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미국발 관세 압박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한국철강협회장인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제26회 철의 날 기념행사’에서 “최근 트럼프 2기 시대로 심화된 불확실성 확대와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 과잉,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며 “철강업계는 오늘 의 생존과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장 회장은 “철강 업계는 수요 업계,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건화해야 한다”며 “또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도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의 날’은 1973년 6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에서 첫 쇠물이 생산된 날로, 2000년 이후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다.

행사에서는 철강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



공자 32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이뤄졌다. 은탑산업훈장은 고부가·친환경 컬러강판 개발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한 박상훈 동국씨엠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은 자동차 용 도금강판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공정 기

술 개발에 기여한 광양제철소 손병근 포스코 명장에게 각각 돌아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미국발 관세 압박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장관은 “철강은 ‘산업의 쌀’이며, 국가 안보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철강 관세 현안에 총력 대응하고 불공정 수입재 방어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장벽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공급 과잉 물품의 수입과 내수 침체 장기화로 국내 철강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철강 산업이 통상장벽으로 인해 수출 물량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면

미래 신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부가 소제 공략으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이 상용화할 경우 기술과 설비 수출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트럼프 2기가 철강·알루미늄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한 이후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수입 철강에 대한 품질증명서(MTC) 확인, 우회덤핑 대응 강화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 전환 지원, 저탄소 철강제 시장 창출 등 탈탄소 미래 준비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ECONOMY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aT, 농식품 고수요 데이터 구축

외국인 외식 소비 분석 등 18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외국인 관광객의 외식 소비 동향, 전국 시군구별 ‘제로 음식’ 판매 추이 등 다양한 유통·소비 트렌드를 분석·개방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에 나선다.

aT는 “2025년 고수요 데이터 확충 사업”의 농식품 분야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이달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고수요 데이터 확충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내 데이터 유통 활성화와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데이터 개방을 넘어 실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고품질 데이터 구축·유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aT는 외식·유통 분야 데이터 전문기업인 NICE지니데이터㈜, ㈜마켓팅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aT는 두 기업과 협력해 유통·소비 트렌드를 비롯해 기초통계, 신사업 등 4개 주요 분야에서 18종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관광지 외국인 관광객 외식 소비 데이터 △전국 시군구별 편의점 제로 음식 판매동향 △반려동물 상품 유통분석 △친환경 농산물 소비트렌드 등의 데이터를 올해 11월 말까지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스(KADX)에 개방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상품 유통분석 데이터는 이용자의 활용을 돕기 위해 시각화 서비스로도 제공된다.

홍문표 aT 사장은 “이번 사업에서 개방하는 데이터는 기업부터 연구기관, 학계·공공 부문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식품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적극 개방해 고수요 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공정위, 중흥에 과징금 180억

3조원대 계열사 무상보증 혐의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 회사에 수조원을 조달할 수 있는 보증을 공짜로 서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 검찰 수사가 지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 지원·사익편취)로 기밀집단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0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24건의 프로젝트파인랜싱(PF)·유동화 대출과 관련해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중흥토건 정원주 부회장이 자본가치 상승, 배당금(650억원), 급여(51억원) 등의 이익을 확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중흥건설 지배구조를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자본 100%를 소유한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부당 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중흥건설은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의결서 접수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

초대만 해도 현금…광주은행 ‘모임통장’ 출시

최대 2만원 혜택…8월말까지 1인당 3개 계좌 가입

광주은행(은행계 고별일)은 오는 8월 31일까지 ‘끼리끼리 모임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시작일 기준으로 ‘모임주(개설자)’가 처음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입출금 통장을 새로 개설하고 새로운 모임을 만든 후, 모임원 1명 이상이 초대할 수 있도록 응모할 수 있다.

광주은행 모바일 앱 ‘광주Wa뱅크’ 내 모임을 개설한 후 구성원을 초대해 회비 입출금 내역과 잔액을 함께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모임원 1명 이상이 초대 수락 시 5000원 지급 △모든 모임원(모임주 포함)이 1회 1만 원 이상 입금 시 5000원 지

급 △모든 모임원이 월 1회씩 3개월 연속 입금하고 3회차 월 말일 기준 잔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 1만 원을 지급하며, 모든 조건 충족 시 최대 2만 원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모임주 기준 1인당 최대 3개 계좌까지 참여 가능하며, 이미 응모한 모임과 모임원 중복(1인 이상)이 있을 경우 참여 불가능하다. 선착순 500좌에 한해 지급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광주은행 계좌가 없는 고객도 ‘광주Wa뱅크’ 앱 가입만으로 모임원 참여가 가능하며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은행은 최근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와 여수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응원하는 푸드트럭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은행은 전남대 재학생들에게 삼계탕을 무료로 제공하고,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나누며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격려했다.

광주경총,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 이끈다

전통시장·동네마트 적극 이용 등 전개

광주경총·전남경총협회가 9일 새정부의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지를 드러냈다.

광주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 809개 회원사는 새정부의 골목경제·서민경제 활성화에 함께 동참한다”고 밝혔다.

골목경제는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 다양

한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경총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시 전통시장, 동네마트 적극 이용 동참에 나선다. 또 소속 회원사 중 소상공인 지역 건물에 대한 임대료 인상하지 않기, 점심 및 저녁 모임은 회원사 주변 골목상권 우선 이용하기,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구청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회원사에 공유하기를 전개한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새정부의 골목경제 정책 기조는 공정한 경쟁, 자립적 생태계, 직접 지원 강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도전할 선택과 집중의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내수 침체와 성장 저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개입이 불가피하다”며 “시민들은 새정부를 믿고 조속히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송대용 기자

스마트인재개발원, ‘디지털새싹 사업’ 선정

2년 연속 성과…맞춤형 교육 지원 등 호평

스마트인재개발원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5 디지털새싹 사업’에서 전국 규모 새싹 B유형 주관기관으로 2년 연속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새싹 사업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생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지난해 이어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 성과와 높은 교육 만족도를 인정받아 올해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현장 교원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 운영과 교원 역량 향상 지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5000여명을 대상으로 총 6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 프로그램 4종(△우리지역 속 속, 디지털 지킴이 △우리나라 전통ON, AI를 커다스 급속실 데이터분석 과학자 △나는 레트로 게임 메이커)과 특화 프로그램 2종(△발명왕의 대회 도전기, AI 우리말 지킴이)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도서벽지, 다문화 가정, 특수교육 대상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북광주·평동농협, ‘상호금융예수금 달성탑’

7000억·2000억탑 수상…지역농협 신뢰도·경쟁력 입증

농협 광주본부부는 북광주농협과 평동농협이 상호금융예수금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상호금융예수금 달성탑’은 농협의 예수금 실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 달성

한 농협에 수여되는 상으로, 지역농협의 신뢰도와 금융 안정성,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꼽힌다. 이번 수상은 건전경영과 함께 조합원 및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더해져 이런 결과를, 지역농협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북광주농협은 예수금 7000억원을 달성, 광주지역 내 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다.

예수금 2000억원을 달성한 평동농협은 농촌형 농협의 지역적 한계를 딛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 주목을 받았다.

이승훈 기자 photo25@

광주신세계 ‘귀멸의 칼날×UFC스포츠’ 컬래버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 제품 선보인다.

9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스포티브 브랜드 ‘UFC스포츠’는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과 컬래버를 통해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한다.

‘귀멸의 칼날’ 탄지로, 네즈코, 젠이츠, 이노스케 등 주요 캐릭터들의 개성을 모티프로 제작된 티셔츠와 맨투맨, 모자와 양말 등으로 구성해 있다.

UFC스포츠와 귀멸의 칼날 컬래버 소식은 SNS를 통해 애니메이션과 격투기 팬들에게 빠르게 알려지면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출시 제품은 SSG 온라인 스토어에서 단독으로 선공개 된다. 이후 오는 13일부



터 광주신세계 플레이 스팟 UFC 스포츠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컬래버 제품은 한정 수량으로 제작돼 조기 품절될 수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간소화 서비스’ 확대

공동 명의자도 가능…최대 2일 이내 환급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 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엔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공동분할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공동명의인 경우라도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대신 신청을 하거나 비공동 분할 환급을 원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이용해야 한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